

여야 내년도 예산안 막판 줄다리기

민주 “지역화폐 발행 증액해야”

국민의힘 “소상공인 지원 중요”

증감 규모 놓고 의견차 합의 불발

여야가 지난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여야는 일단 2조4000억원 규모의 감액에 잠정 합의한 이후, 증액 규모에 맞춰 추가 삭감 규모를 논의하는 중이다. 여기서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늘려 확장 재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긴축 기조로 소상공인 직접 현금 지원 등에 방점을 찍은 국민의힘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올해(21조원) 이상으로 확대 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발행 규모(6조원)보다 15조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위해 최대 1조5000억원가량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은 큰 틀에서 정부가 짜서 보낸 정부안보다

는 조금 더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결위 삭감이 2조4000억원이기 때문에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야 합쳐서 5조원 이상 하기가(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지역 화폐 등 당정 간 최종 조율된 예산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용자 지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3조5000억원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뉴딜 사업과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들, 집행 저조 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전부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통화에서 “애초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감액 규모가 6조2000억원”이라며 “최소 5조7000억원~6조원 규모로 총 감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역 화폐 사업 예산을 놓고 팽팽한 신경

전을 이어 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고 또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바라는 정책”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50조 소상공인 지원을 공약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 같은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붙이기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바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두터운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 여야는 본회의에 올릴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1일까지 여야 최종 답판을 지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강기정, 대학가 강연 통해 광주시장 선거 시동

‘상무포럼’ 등 지지모임도 창립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부수석이 지역대학 강연 등을 통해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강 전 수석을 지지하는 포럼이 잇따라 발족되는 등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도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강 전 수석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매체관에서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청년과 함께하는 강기정의 젊은 Talk’ 강연이 이뤄졌다. 그는 이날 ‘청년 강기정’, ‘청와대 시절 에피소드’, ‘집표를 만나 떠난 독일유학’ 등을 이야기하며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강연 이후에는 청년들의 고민을 듣는 ‘젊은 Talk’ 토크쇼가 진행됐다.

강 전 수석은 앞서 지난 23일 호남대학교 IT스퀘어에서 대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취향저격

의 세계’ 강연을 했다. 강 전 수석은 “청년들이 꿈꾸는 광주의 모습이 무엇인지 좀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한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월 1일 오후 12시30분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관에서 ‘나의 독일 이야기’를 주제로 청년들과 만난다.

강 전 수석을 지지하는 포럼 창립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와 유관기관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무포럼’이 지난 29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들 공무원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청 강연자로 나서 ‘호남 7대 대선공약과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지난 23일에는 강 전 수석 지지 모임인 ‘행복광주 미래광주 포럼’이 출범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전남선관위 “지방선거 제한·금지 행위 단속”

D-180... 12월 3일부터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중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3일부터 제한 및 금지 행위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또한 대통령선거(내년 3월 9일)와 지방선거 기간 공무원 선거관련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인 증서비스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제한 및 금지행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자체(교육청 포함)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발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이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이름표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상을 상징하는 인형·마스콧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사·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임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윤석열 처가, 사위 덕 봐... 양평 개발 특혜”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분부장(본인·부인·장모) 공세를 이어갔다.

황은하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2006년, 2008년(양평 공흥지구)에 국민인대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민 반대 등으로 중단됐었다”며 “이때 반대한 주민들이 알고 보면 윤 후보 장모 최모씨와 그 처가 일가로 구성된 이에스아이엔디(ESI&D)라는 부동산 개발회사”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그 지역(양평 공흥지구) 일대에 350가구 분량 정도의 개발 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이 이것을 승인하는데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최씨가 도시개발구역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는데 2014년 11월까지인데 공사를 못 하고 2016년 넘어까지 계속 간다”며 “이 기간 내 사업실시계획이 잘 안된 경우에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것을 연장해 주는 변경 인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평군이) 윤석열 검사를 보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당시 양평군에서 사업기간을 불법적으로 연장해 줄 때 당시 최씨의 사위는 윤석열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2~2018년 ESI&D가 양

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해 800여 명의 분양 매출을 내고 최소 205억원의 수익을 챙겼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위와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양평 공흥지구 현장과 양평군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한 공세로 힘을 보탤다.

정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또는 김건희의 은폐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꾸 노출을 안 시킨다. 정책적으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전남 초·중·고생 과일·채소 간식 지원 근거 마련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통과

전남지역 초·중·고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3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명수(더불어민주당·나주2·사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과일 간식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초·중·고학생에게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성정 아동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일 간식 지원에 필요한 지원 대상, 공급 횟수,



공급 방식 등의 지원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등고 중지, 등고일 축소 등으로 과일 간식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택배 등의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성정기 초·중·고생이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 섭취를 늘리게 돼 초·중·고생 건강 증진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상가매매 (상무지구)

6, 7층 (140평)분양[중심상업지구]
감정가(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00, 용 3억5천)

1) 6층(80평 분양) 감정가(시세) -> 6억
(보2천, 월200) 급매가 -> 4억 5천

2) 7층(60평 분양) 감정가(시세) -> 4억
(보1천, 월100) 급매가 -> 2억 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산설도로 근접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 적벽돌외벽 스텔라블루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중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외 식재면 조정용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죽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흥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655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응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운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프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상성홀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분할합병공고

2021년 11월 30일 각자 주주총회의 결의로, 서정원에너지 주식회사(이하“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엘케이테크(이하“을”)와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업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위계서도 등 기관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1일

“갑” 서정원에너지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해방로 53-10동 211호
(대표이사 서정원, 대표이사 서정원)
공동대표이사 정대선
공동대표이사 서용규

“을” 주식회사 엘케이테크
세종특별자치시 남성로 125-4, 808호
(대표이사 서정원, 대표이사 서정원)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남 운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양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